

# “익산시의 미래 청사진 우리가 만든다”

###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위한 ‘시민계획단’ 발족 시민·청년 등 65명 구성 도시계획 기본방향 의견 수렴

“20년 후 익산의 미래 우리가 그린다.” 익산시는 최근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20년 후 익산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수행과제 등을 도출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시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와 대학생 등 각계각층

65명을 시민계획단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총 5개 분과로 1분과(도시재생·도시농촌), 2분과(교통·철도·경제), 3분과(문화·관광), 4분과(교육·복지), 5분과(환경·안전)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익산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고 주제별 토의와 토론을 거쳐 분야별 추진전략과 수행과제를 도출할 예정이

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계획단은 과거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수립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계획단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익산시는 최근 시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 대학생 등 각계 각층 65명으로 구성된 '2035 익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익산시 제공>

## 남원의 어제와 오늘 ‘한눈에’ ...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내달 개관

광한루원 인근 30억 들여 건립 남원의 근현대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이 이르면 다음 달 개관한다.

기록관은 남원시가 30억원을 들여 광한루원 인근의 고갯지구에 지상 2층, 전체 건물면적 671㎡ 규모로 건립하고 있다. 남원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각종 자료와 사진을 비치한 ‘공간의 기억’, 근현대 각종 매체를 전시하는 ‘남원 포스트’, 과거 행정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나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모두 합친 라키비움(Larchiveum) 성격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기록관은 남원 시내 관광의 중심지에 있어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읍성 뚫으며 무병장수 기원하세요”

### 군, 전통의상 입고 답성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창읍성 뚫으며 무병장수 기원하세요.” 고창군이 ‘겉고 뚫으니 건강이 절로, 고창읍성 답성놀이를 하는 주제가 11월까지 고창읍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창읍성은 예로부터 ‘돌을 머리 위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 한다’는 전설이 있다. <사진> 매년 열리는 모양성제에서 한복을 입고 답성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지만, 상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고창읍성 체험 프로그램이 처음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의상을 입고 답성놀

이를 한 후 SNS로 홍보하면 상품권 추첨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고창읍성을 구석구석 알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과 조선시대 관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고창읍성 앞에는 미니어저 장승 및 기방·핸드폰 고리만들기, 고창읍성 맹종죽 소원성취서 쓰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병열 고창문화연구원 사무국장은 “고창군의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창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



## ‘순창표’ 밥피자·밥버거를 아시나요

### 군, 고추장 활용 새 메뉴 4종 개발 관광객 입맛 잡아

순창군이 고추장을 활용한 새로운 체험요리를 선보이며 관광객 입맛을 사로잡는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의 대표 체험관인 장류체험관이 6월부터 식사와 간식 대응으로 영양과 맛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요리 4종을 개발했다. 새 음식은 풀라보 밥피자, 밥버거, 꼬치맛탕, 고추장 떡볶이다. <사진>



이들 요리는 고추장을 기본으로 버거, 피자, 꼬치, 떡 등을 접목했다. 특히 꼬치맛탕은 최근 인기를 끄는 소떡소떡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해 10대 체험객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이 개발한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전국의 학교, 여행사를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나선

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순창군 장류사업소장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장류소스와 요리가 어우러진 신개념 장류요리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장류체험관이 장류의 감동과 소중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추억의 매개체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 정읍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미세먼지 저감대책 ...100가구 대상 비용 지급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79%가량 저감 배출되는 반면에 열효율은 91% 이상(일반 보일러 80~8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반 보일러에 비교해 가격이 20만원가량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6월까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100가구에 가구당 16만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신청은 주택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가능하다. 신청은 20-24일 정읍시청 환경과(본관 3층)를 방문해 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노후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료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지역주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기업·소상공인 등 불합리한 규제 듣고 애로사항 해소

군산시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산시는 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 사항 해소 차원에서 ‘2019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강화 기조에 따라 관내 기업과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들

단장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추진단 구성 이후 규제 관련성이 높은 사업부서참여로 주민 생활 불편규제와 경제 활성화 저해기업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의된 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임야 급매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